

# 어린이와 장난감

★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과거의 우리들의 태도를 도리켜 볼 때, 반성 되는 점 ★  
 ★ 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아무 계획성 없이 어른 ★  
 ★ 들의 기분내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주어진 장난감의 수효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 ★  
 ★ 른다. 그리고 또 선택하였다는 장난감도 과연 하나 하나가 연령에 적합한 ★  
 ★ 지? 또 어린이 놀이를 귀찮다고 여긴적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 과격한 ★  
 ★ 말을 한다면 어린이들의 인권 보장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  
 ★ 좀 더 친절히 어린이들의 권리를 찾아 줄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배 선 자

숙명 여자 고등 학교

## 一. 어린이 심리와 장난감

### 1. 갓난 애기 시대

어린이가 탄생하여서 뉘이 될 때까지의 일 년이라는 기간은 일생을 통한 어느 일 년 보다도 지능과 여러 가지 감각의 성장 활동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을 연마하고 모든 운동 발달에 능히 충당할 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령기에 있는 자녀의 학과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크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도 깊은 것 같지만 좀 더 나이 어린 시절의 놀이에 대한 태도나, 관심은 그보다는 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다. 사람이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린 때의 논다는 사실과 학교에 갔을 시절에 공부를 한다는 사실은 그 비중을 따져 볼 때에 꼭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나타나는 사실의 결과만으로 보았을 때는 물론 차이가 있으나, 이

것은 그 때 그 때의 지능과 신체의 발달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가는 새삼스러히 재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 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가 약 두 살까지 보이는 색은 빨강, 초록, 물색, 청색, 노랑 등인 것 같고, 이 중에서 빨간색 이외의 색은 채도가 확실치 않고, 분홍색 같은 것은 흰색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갓난 애기들에게는 짙은 색이 효과적이다.

청각은 생후 약 일년 동안은 거의 미발달이지만 두 살부터 네 살 사이에 완전히 발달하여 거의 완전한 성인의 청각과 같게 되는 것이다. 음악에 의하여서 인간성, 감정 등이 풍부하여 진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될 수 있으면 순수한 리듬이 있는 깨끗하고 밝은 음을 들려주고 싶

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 피리, 울퉁, 악기 장난감 등 여러 가지 것을 모아서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주고 싶은 것이다.

또 통계에 의하면 한 살부터 네 살까지 사이에 가장 많은 장난감을 파괴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신체에 움직임이 자유롭게 되고 감각이나 운동 신경의 발달이 활발하여 지고 끝 없이 연달아 호기심이 생겨서 이 모든 욕구에 대한 충당을 장난감에서 기대하게 되고, 또 사실 장난감을 만지고 망그러뜨림으로 하여서 만족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성장을 돕기 위한 파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나면 값이 비싼 장난감을 사다 주고 부셨다고 꾸지람을 한다는 결과는 결코 나올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의 예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다. 지금 장난감을 부시고 어른에게 꾸지람을 들은 어린이가 사오년 후에 학교에 가서 공작 시간에 색종이로 새를 접고 꽃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장을 접고 오리고 하다가 결코 새도 꽃도 아무 것도 만들지를 못하고 종이 만을 없애 버렸다고 하여서 그 때 또 지금과 똑 같이 나무라겠는가 하는 이야기다. 결코, 꾸짖기는 커녕 오히려 친절하게 지도하여 올바른 새와 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장난감을 부셨다고 못 마땅히 여기고, 다시 사다주는 것을 꺼린다. 그 이유는 오늘 날까지 어린이 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하

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모순인 것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자연히 자라는 줄만 알고 있다. 화초도 아침 저녁으로 잘 가꾸어 준 꽃과, 손을 대지 않은 꽃과 다를진대 하물며 귀중한 자기 자손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귀찮다는 태도로써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생후 십 개월~십 오 개월까지에 나타난 즐겨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완전한 훌륭한 것도 좋지만 한편 딸맹이등의 조개진 조각, 찢어진 한 부분, 성냥갑, 냄비 뚜껑, 신문지, 수저, 자 같은 것을 좋아하고, 조금 커지면 숨 넣고 꿰맨 여러 가지 동물, 찢어진 책, 여러 가지 빈 병, 크립 통, 주걱, 라디오(다아알을 돌리며 논다)등을 대단히 좋아한다.

세살쯤 되면 소꿉질, 상자 속에 여러가지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등의 쓸모가 없는 자자분한 물건등을 좋아 넣고 좋아한다. 또 흑판, 세발 자전거 여러 가지 차, 자동차 종류, 돌맹이, 작은 연필 같은 동일한 것을 많이 좋아 놓기를 좋아 한다.

이상의 예를 보더라도 훌륭하고 비싼 장난감 보다는 간단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주위의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훌륭한 것을 전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자유로히 언제나 주어 줄 수 없는 관계로 가지고 노는 동안에 어른들의 간섭이 많고 귀찮으니까 두려워 하는 것 같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세살 이상되면 색채 감각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장난감도 여러 가지 색을 갖추도록 하여야 된다. 예술적인 가치가 엿보이는 그림 천연색 환등 같은 것을 감상시키는 것도 좋겠다.

## 2. 유아기

이 시절은 상상의 생활이 활발한 시절이라고 볼 수 있다. 상상, 흉내, 구성본능이 나날이 발달하여 나가는 시기가 되어서 종일 혼자서 중얼거리고 다녀도 조금도 심심치 않고 오히려 즐거워 보인다. 운동이 왕성하여 저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뽕 던지기등 대단히 기뻐한다. 손끝의 신경이 발달하여서 가위질도 곧 잘 하고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마음대로 벌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난감으로서 인형, 집짓기, 흙장난등 가장 인기가 절정에 도달할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二. 어린이의 흥미와 장난감

어린이의 흥미는 어른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어른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되어서 기껏 장난감을 사다 주어도 어린 아이는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어른이 보아서 더럽다고 버리라고 질색을 하여도 어린이 자신이 좋아서 좇은 것이면 더러운 것이든 폐품이든 무슨 보물 모양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주로 크고 튼튼한 것을 좋아하는 한편 자연적인 것, 작은 것, 가까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망가지기 쉬운 작은 물건 이런 것들을 좋

아 한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한없이 창조의 재료로서 상상의 세계에서 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난감을 대별하여서 가격이 비싸서 여간 손쉽게 손에 들어 오기 힘든 것, 또 가격은 만만하여도 교육적이 못 되는 것, 어린이의 흥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이 평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큰 숙제일 것이다.

## 三. 장난감의 역할

어린이는 자연적인 것에 더 큰 흥미를 갖게 하여야 한다. 흙이나 모래 장난 기타 여러가지 풍부한 자연적인 자극을 주어 어린이의 감각을 풍부히 하고 싶은 것이다.

어린이는 또 미완성품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게 된다. 또 위험시 되는 것. 퍼스를 같은 것에 스틸을 느끼고 여러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각자의 에너지를 적절히 놀이 속에 발휘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일일이 위험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는 차례 차례로 장난감 놀이로써의 흥미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흥미가 닥아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좋겠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에 불안도 괴로움도 다 있고 온 정신을 주입시키고 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속이 상하는 일이 있는 어린이는 장난감을 만지고 있는 동안에 기분이 나아지고 열중하고 차

차 즐거워 지는 것이다.

용미에 적합한 장난감은 어린이에게 해방감과 정복감을 주는 것이다. 장난감에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다.

어린이 마음 속에 장 시간 동안 불안과 불만을 주어 둔채 놓아 두면 안된다. 이러한 점이 장난감, 놀이로써 해결된다면 절대로 이것을 소홀히 할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 四. 장난감 선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서 장난감을 선택하면 좋겠다.

1. 같은 종류 보다 많은 종류
2. 견고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너무 소잡한 것은 어린이에게 실망을 주고 금방 실증이 난다).
3. 공포 추악감을 느끼지 않는 것.
4. 위험하지 않은 것.
5. 색이 옅지 않는 것.
6. 장식해 놓고 보는 것은 부적당하다.
7. 승부를 내는 장난감은 부적당하다.
8. 비 위생적인 것은 적당치 않다.
9. 적극적인 신체에 도움이 되는 것(운동기구).

#### 五. 장난감을 주는 법

1. 한번 주어 버리고 어른이 돌보지 않는 것은 교육적이 아니다.
2.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3. 자연적인 것, 폐물 이용, 미 완성품을 많이 준비해 둔다.
4. 자신이 조립시켜 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자신이 사는 기회도 준다.

6. 정리하는 정신을 길러 준다.

#### 각 연령에 적합한 대표적인 장난감.

##### 생후 1개월~4개월

1. 눈이 보이기 시작할 때 천정에 매달아 놓고 조용히 골고루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게 한다. 어린이는 색과 전체적인 모양 만이 보임으로 세세한 장식은 필요치 않다.

##### 2. 딸 랭 이

처음에는 어른이 흔들어 주고 차차 물건을 질 수 있게 되면 대단히 좋아 한다. 가볍고, 소리도 깨끗한 것, 색이 예쁜 것이 적당하다.

##### 5개월~10개월

오뚜기. 얼굴이 확실한 것이 좋다.

##### 5개월~12개월

1. 여러 가지 동물 튼튼하여야 한다. 잘 망가지면 어린이가 실망하게 된다.
2. 인형. 여자 아이는 자기가 어머니가 되어서 애기라고 귀여워 한다.

##### 3. 자 동 차

##### 1세~2세

1. 목제 동물. 모양, 표정, 색채가 섬세하고 확실한 것.

##### 2. 공

##### 2세~5세

집 짓기

##### 3세~5세

마당놀이 용구. 조로, 삽, 물통, 세발자전거.

##### 4세~5세

1. 악기, 장난감. 2. 소꿉도구.